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제 2986호 i-honam.com (음력 7월 17일) 2020년 9월 4일 금요일

"1주일만 버텼으면 추석판매 가능했는데"

나주시 금천면 배 과수단지 재배농민들 '한숨'
나무에 달린 것보다 땅에 떨어진게 더 많아
"배농사 50년에 이런 적 처음…또 태풍이라니"

"일주일만 더 버텨 줬으면 추석 차례상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1년 배농사 다 망쳤네요" <관련기사 8면>

3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배과수단지 농민 박모(71)씨는 지난 밤 태풍 '마이삭'의 강풍을 맞고 힘없이 떨어져 버린 배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나무보다 땅에 굴러다니는 배가 더 많은 것을 보고 "기절 하는 줄 알았다"며 심정을 표현했다.

박씨는 "지난 주 불었던 태풍 때는 피해가 없어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는데"라며 떨어진 배만 하염없이 바라봤다.

실제 9900㎡ 부지의 나무에는 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나마 나무에 달려 있던 배도 꼭지 부분이 바람에 흔들려 손만 대면 땅으로 뚝 떨어지기 일쑤였다.

박씨는 "백화점에서 나주배는 명품으로 통해 1개당 7000~8000원에 판매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먹을 수 있는 배라도 골라내기 위해 주저 앉아 떨어져 있는 배를 주워 감싸고 있던 신문지를 벗겨냈다.

하지만 금새 배는 개미 등 벌레들의 차지가 됐고 빗물, 진흙과 섞이면서 10개 중 2~3개 정도만 바구니 속으로 들어갔다.

박씨는 "배에 당분이 꽉차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꼬인다"며 "다음주 정도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즙이라도 만들기 위해 골라내고 있는데 거의 없다"며 "배농사 50년을 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태풍이 또 온다고 해 막막하다"며 "그나마 나무에 달려있는 배들마저 떨어지면 올해 농사는 완전히 끝난다"고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지나간 3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한 배과수단지에서 농민이 강풍에 떨어진 배를 보며 망연자실 하고 있다.

박씨 인근의 다른 배과수 농가도 사정은 똑같았다.

피해 규모는 전체 재배면적(1943ha)의 5%에 해당하는 100ha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농민 이모(50)씨는 "지난 태풍 때 한차례 흔들거렸던 배들이 이번 태풍 때 완전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태풍 때는 그나마 버티고 있던 배들도 위험하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시민들 절규, 가슴 미어져"

이용섭 광주시장의 호소문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공동체 안전을 위해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서민들의 절규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어렵고 힘든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해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최근 9일 동안 확진자 108명이 발생하고, 이곳저곳에서 잔불들이 바람 불기만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며 "힘들더라도 굵고 짧게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느슨하게 대응해 아주

코로나19 자영업자 안타까움 표시
"생명 지키는 것이 최고 민생대책"

오랜기간 훨씬 큰 고통을 감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중대 기로에 서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지금의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민의 생명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무너지면 시민들의 정상적인 삶도, 일자리도, 지역경제도 모두 무너진다"며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안정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 많은 시민들이 면담이나 전화, SNS 등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 직종에 대한 행정명령 예외나 지원을 호소한다"며 "다 이유 있는 사연들이지만 시장으로서는 150만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사안의 경중, 선후, 완급을 따져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의 잔불이 정리되는대로 맞춤형 민생대책을 이어가겠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 지역 인구 감소세 지속…고령인구 비율은↑

▲ 호남 통계청 '100대 통계지표로 본 지역 변화상' 발간

광주인구, 2015년 정점 이후 감소세 이어져…고령비율 2028년 20.9%달할 것
전남인구, 오는 2047년 161만1000명까지 줄어…2012년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

광주와 전남 지역 인구 감소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통계의 날과 통계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100대 통계지표로 본 광주·전남 변화상'에 따르면 2015년 광주 인구는 150만6000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현재 광주 인구는 148만8000명으로 줄었다. 오는 2047년에는 126만3000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2.6%에서 올해 13.7%로 상승했다. 오는 202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9%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47년에는 36.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출생아 수는 1995년(2만2907명) 정점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2019년에는 8364명으로, 198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 당 초등학생 수는 2019년 6110명으로, 1999년(8979명)에 비해 2869명 감소했다. 2017년(6025명)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중학생 수는 2019년 2957명으로, 1999년 4433명에 비해 1476명 줄었다.

인구 10만명 당 의료기관 수는 2017년 141개로 2009년(119개)에 비해 18.0% 늘었다. 전국 128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 수는 2018년 192.5개로 2006년 155.8개에 비해 23.6% 증가했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0.5대로, 2003년 0.3대에 비해 0.2대 증가했다. 이는 전국 0.5대와 동일한 수준이다.

아파트 거주율은 2018년 65.5%로, 1990년 16.8% 대비 48.6%p 상승했다. 아파트 거주율은 2000년·2005년·2010년·2015년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는 세종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인구는 1970년(345만 명) 정점 이후 2020년 176만4000명까지 감소했다. 오는 2047년에는 161만1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4.3%에서 2012년 20.0%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올해의 경우 23.1%까지 상승했다. 오는 2047년에는 46.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출생아 수는 1981년(8만3894명) 정점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1만832명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문화가구는 2018년 1만3342가구로 2010년(9366가구) 대비 3976가구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증가세다.

인구 10만 명 당 초등학생 수는 2019년 5081명으로, 1999년 7524명에 비해 2443명 줄었다. 2016년 4884명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중학생 수는 2019년 2444명으로 1999년 3910명에 비해 1467명 감소했다. 2007년 3941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의료기관 수는 2017년 105개로 2009년 88개에 비해 19.5% 증가했지만, 전국 128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요양기관 수는 2018년 178.8개로 2006년 148.7개에 비해 20.2% 증가했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0.6대로, 2003년 0.3대에 비해 0.3대 증가했다.

김정환 기자